

학습목표

1. 문법지문에서 예시를 활용 할 수 있다.
2. 문법적 구분을 확인하고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
3. 용언의 활용 문제 접근에 대한 추가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

Theme 4. 언매) 지문이 있는 문법 문제 해결

출처: 2023학년도 9월 모평 시험 35~36번 문제

해설자료 구성과 활용 하는 방법

[해설 자료]

1. 지문

[1 문단]

제도의 선택에 대한 설명에는 합리적인 주제인 사회
성원들이 사회 전체적으로 가장 이익이 되는 제도를
선택한다고 보는 효율성 시각과 이데올로기·경로의존성·
역 과정 등으로 인해 효율적 제도의 선택이 일반적
않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제도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설명하는 관점은 두 가
있다.

- 효율성 시각
- 효율적 제도의 선택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보는 시각

설명:

- 두꺼운 두 줄로 사이에 있는 내용은 지문입니다.
- 지문 아래에 해당 문장에 대한 해설을 작성했습니다.

To-Do List:

- 지문 읽으시고, 아래 해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해당 지문이 이해가 안가거나 인상적인 내용이 있다면, 별표나 나름대로의 표시하고, 나중에 복습하시면 됩니다.

2. 단어 확인

WORD 1 직관-적 直觀的 이라는 것

直 곧을 직 觀 불 관 的 과녁 적

1. 판단이나 추리 따위의 사유 작용을 거쳐 지
상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것.

WORD 2 호소-력 呼訴力 이라는 것

呼 부를 호 訴 호소할 소 力 힘 력(역)

1. 강한 인상을 주어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2. 호소(呼訴)하여 동정(同情)을 불러일으키는

설명:

- 평소에 쉽게 지나가는 단어들, 그런 단어들의 뜻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To-Do List:

- 해당 단어의 뜻을 명확히 몰랐다면, 꼭 뜻을 확인합시다.
- 나중에 공부하면서 지나가는 단어 중에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나름대로 검색해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3. 추가적인 학습 포인트

CHECK 2 OR이 있는 문장구조(복문의 함정)

OR구조로 이어질 때 문장 성분이 생략되는 경우

- 사과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중력으로 설명할
- 포탄이 포물선 운동을 하는 이유는 중력으로 설명할 (OR을 통한 문장구조)

사과가 바닥으로 떨어지거나 포탄이 포물선 운동을 하
중력으로 설명 할 수 있다.

해당 네모를 친 표현에서 실제로 생략되는 문
'지는 이유는 중력으로 설명할 수 있다.'이며, 이

설명:

- 주어진 문장에서 추가로 학습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정리했습니다.

To-Do List:

- 학습 포인트를 읽고, 지문에서 해당 포인트를 직접 확인합시다.
- 복습하신다면, 꼭 별표나 자신만의 표시를 합시다.

4. 학습목표

학습목표

- 익숙해서 쉽게 지나가는 단어를 제대로 모르는 경우
- 익숙한 문장구조에서 생략되는 표현이 있다는 것을
- 지문에서 그래프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래프의 특징
- 개념 간의 차이를 인식하고 구분 기준을 확인할 수
- 정성적 개념과 정량적 개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설명:

- 처음에 정리된 학습목표들은 다시 확인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To-Do List:

- 학습목표를 확인하시면서 앞에 네모 칸에 체크합시다
- 학습목표 아래에 네모 칸에, 해당 학습을 하면서 기억에 남거나, 깨달은 점들을 정리합시다.

[1 문단]

국어에서는 명사가 동사나 형용사와 차례대로 결합하여 ‘손잡다’와 같은 합성 동사나 ‘쓸모없다’와 같은 합성 형용사가 만들어질 수 있다.

- 명사(손) + 동사(잡다) = 합성동사
- 명사(쓸모) + 형용사(없다) = 합성형용사

합성 동사와 합성 형용사를 묶어 합성 용언이라고 한다. 합성 용언은 크게 구성적 측면과 의미적 측면에서 분류할 수 있다.

- 합성 동사 + 합성 형용사 = 합성 용언

합성 용언의 (또 다른) 분류

- 구성적 측면
- 의미적 측면

CHECK 1 지문을 버리면 안 된다! 또한 문법에서는 예시를 놓치면 안 된다.

물론 언어와 매체 파트는 암기를 기반으로 하고, 때때로 암기만으로도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지만

35, 36번 문제에서 지문을 버리면 안 된다.

해당 문제 유형에서 지문을 주는 이유는 많지만, 그 중에서 생소하거나 예외적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문을 제시한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 이에 대해 문법 규칙이 제시되지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문법 규칙의 내용을 보충하면서 직관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예시가 제시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문에서 주어지는 예시를 확인하며, 주어진 문법 규칙에 대응하여 이해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해당 대응을 통해, 익숙하지 않은 규칙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물어보는 것이 35, 36번 문제 세트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2 문단]

먼저 구성적 측면에서 합성 용언은 그 구성 요소들이 맺는 문법적 관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구성적 측면이라는 단어에서 ‘구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

WORD 1 구성 構 傭 을 구 成 이룰 성

1.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들을 모아서 일정한 전체를 짜 이름. 또는 그 이룬 결과.
2. 문학 문학 작품에서 형상화를 위한 여러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배열하거나 서술하는 일.
3. 예체능 일반 색채와 형태 따위의 요소를 조화롭게 조합하는 일.

구성은 부분적인 것들이 모여서 전체가 되는 것이며,

- 명사(손) + 동사(잡다) = 합성동사
- 명사(쓸모) + 형용사(없다) = 합성형용사

그 구성요소라는 것은 명사와 동사, 형용사 사이의 문법적인 관계를 확인해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법적인 관계’란 무엇인가?

예를 들어 ‘쓸 만한 가치가 없다.’를 뜻하는 ㉠ ‘쓸모없다’는 명사 ‘쓸모’와 형용사 ‘없다’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보여 주고,

- 명사(쓸모) + 형용사(없다)
- :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
- 그러면 명사에 주격 조사를 붙여보자.
- : 쓸모가 없다.

표현의 어색함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손을 마주 잡다.’를 뜻하는 ㉡ ‘손잡다’는 명사 ‘손’과 동사 ‘잡다’가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보여 준다.

- 명사(손) + 동사(잡다)
- :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
- 마찬가지로 명사에 목적격 조사를 붙여보자.
- : 손을 (마주) 잡다.

이 또한 표현의 어색함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남에게 드러내어 뽐낼 만한 거리로 하다.’를 뜻하는 ㉢ ‘자랑삼다’는 명사 ‘자랑’과 동사 ‘삼다’가 부사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보여 준다.

- 명사(자랑) + 동사(삼다)
- : 부사어와 서술어의 관계
- 마지막으로 부사격 조사를 붙여보자.
- : 자랑으로 삼다.

마찬가지로 표현의 어색함이 없다.

여기까지 정리되면 해결되는 것이 있다. ‘문법적인 관계’란 무엇인가? 그것은 문장성분 간의 관계였다. 다시 말해, 주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었다.

CHECK 2 차이점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이를 만드는 기준까지 확인해야 한다.

2문단에는 ㉠, ㉡, ㉢ 표시되어 있으며, 이는 해당 개념들의 차이를 물어보는 것이다.

나열된 개념들은

-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
-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
- 부사어와 서술어의 관계

이며, ‘서술어의 관계’는 공통적으로 반복된다. 따라서 확인해야 할 차이점은 주어, 목적어, 부사어이다.

차이를 만드는 기준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며, 문법 환경에서 문장성분에 따라 조사가 달라진다. 따라서 명사 뒤에 조사를 붙인 것이다.

이처럼 차이점의 기준을 확인하는 것은 문법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문제에 접근하는데 도움을 준다,

[3 문단]

한편 의미적 측면에서 합성 용언은 그 구성 요소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와 구성 요소의 의미를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의미적 측면에서 합성용언 구분

- 구성 요소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함
- 구성 요소의 의미를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획득함

가령 ‘쓸모없다’는 구성 요소인 ‘쓸모’와 ‘없다’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한다.

구성 요소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함

예시를 제시함: 쓸모없다.

- ‘쓸모: 쓸 만한 가치’의 의미가 유지됨
- ‘~이 없다’라는 의미가 유지됨

반면 ‘주름잡다’는 구성 요소인 ‘주름’과 ‘잡다’의 의미를 벗어나 ‘모든 일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처리하다.’라는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 경우이다. ‘주름잡다’의 이와 같은 의미가 구성 요소의 의미를 벗어나 새롭게 획득되었다는 사실은, ‘나는 바지에 주름 잡는 일이 너무 어렵다.’의 ‘주름 잡는’의 의미를 고려하면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구성 요소의 의미를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획득함

예시를 제시함: 주름잡다

기존의 주름잡다 예시

: ‘나는 바지에 주름 잡는 일이 너무 어렵다.’

새로운 의미를 획득함: 모든 일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처리하다.

지문에서 주어지는 예시를 확인하며, 주어진 문법 규칙에 대응하여 이해해야 한다.

[4 문단]

그런데 구성 요소의 의미를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 합성 용언 중에는 필수 부사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 합성용언

- 필수 부사어를 요구하는 경우
- 필수 부사어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개념적으로 구분될 때, 구분되는 개념 뿐 아니라 구분하는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두 개념은 필수 부사어를 요구하는지 안하는지에 따라 구분된다.

예를 들어 ‘불타다’가 ‘나는 지금 학구열에 불타고 있다.’에서와 같이 ‘의욕이나 정열 따위가 끓어오르다.’라는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 경우에는 ‘학구열에’라는 필수 부사어를 요구한다.

필수 부사어를 요구하는 경우

예시를 제시함:

나는 지금 학구열에 불타고 있다.

- 합성 용언: 불타다
- 필수 부사어: 학구열에

이러한 사실은 ‘불타다’가 ‘장작이 지금 불타고 있다.’에서와 같이 구성 요소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필수 부사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과 비교할 때 더 분명해진다.

필수 부사어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예시를 제시함:

장작이 지금 불타고 있다.

- 합성용언 불타다
- 필수 부사어를 요구하지 않음

해당 예시는 구성요소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다. 이처럼 개념적 구분을 넘어서 예시를 제시하는 것은 더 많은 경우를 고려하도록 지문을 구조화한 것이다.

35.③ 36.③

[35번 문제]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지에서 ㉠,㉡,㉢이 반복되는 것을 확인하고 이번 문제를 접근하면, 2문단의 개념적 구분을 근거로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① ‘나는 시장에서 책가방을 값싸게 샀다.’의 ‘값싸게’는 구성적 측면에서 ㉠과 동일한 유형의 합성 용언이겠군.

활용표현: 값싸게
활용하지 않은 표현: 값싸다 → 값이 싸다
: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
따라서 해당 선지는 참이다.

② ‘나는 눈부신 태양 아래에 서 있었다.’의 ‘눈부신’은 구성적 측면에서 ㉠과 동일한 유형의 합성 용언이겠군.

활용표현: 눈부신
활용하지 않은 표현: 눈부시다 → 눈이 부시다.
: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
따라서 해당 선지는 참이다.

③ ‘누나는 나를 보자마자 뒤돌아 앉았다.’의 ‘뒤돌아’는 구성적 측면에서 ㉡과 동일한 유형의 합성 용언이겠군.

활용표현: 뒤돌아
활용하지 않은 표현: 뒤돌다 → 뒤로 돌다
: 부사어와 서술어 관계
㉡은 목적어와 서술어 관계에 대한 예시이지만, 해당 선지는 부사어와 서술어 관계를 묻는 예시이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거짓이다.

④ ‘언니는 밥새워 숙제를 다 마무리했다.’의 ‘밥새워’는 구성적 측면에서 ㉡과 동일한 유형의 합성 용언이겠군.

활용표현: 밥새워
활용하지 않은 표현: 밥새다 → 밥을 새다
: 목적어와 서술어 관계
따라서 해당 선지는 참이다.

⑤ ‘큰형은 앞서서 골목을 걷기 시작했다.’의 ‘앞서서’는 구성적 측면에서 ㉢과 동일한 유형의 합성 용언이겠군.

활용표현: 앞서서
활용하지 않은 표현: 앞서다 → 앞에 서다
: 부사어와 서술어 관계
따라서 해당 선지는 참이다.

CHECK 3 활용표현이 있을 때 대처방법

문법문제 중에서 서술어에 관한 문제를 풀다가 막히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꼭 활용되지 않은 표현으로 바꿔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활용되지 않은 표현이 우리에게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단순한 표현이기 때문에, 서술어와 관련된 문법 사항들을 정리하기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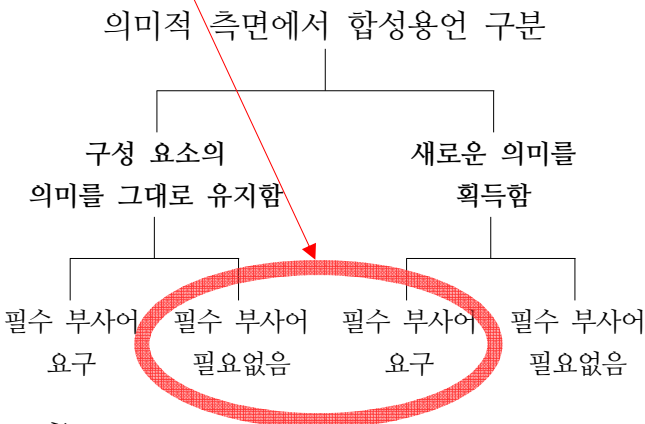
이와 같이 활용되지 않은 표현으로 돌아가는 것은 문법 환경을 정리하는 방법 중 하나

[36번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선지에서 필수부사어에 대해 정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필수부사어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해보자

3문단에서 4문단



<보기>

- 그는 학문에 대한 깨달음에 ㉠ 목말라 있다.
- 그는 이 과자를 간식으로 ㉡ 점찍어 두었다.
- 그녀는 요즘 야식과 ㉢ 담쌓고 지내고 있다.
- 그녀는 노래 실력이 아직 ㉣ 녹슬지 않았다.
- 그녀는 최신 이론에 마침내 ㉤ 눈뜨게 됐다.

① ㉠ : 구성 요소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고 필수 부사어를 요구한다.

㉠의 '목말라'는 '목이 마르다.(물 따위가 몹시 먹고 싶다.)'라는 구성 요소의 의미를 벗어나 '어떠한 것을 간절히 원하다.'라는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 경우 이다.

② ㉡ : 구성 요소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고 필수 부사어를 요구하지 않는다.

㉡의 '점찍어'는 '점을 찍다.'라는 구성 요소의 의미를 벗어나 '어떻게 될 것 이라고 또는 어느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정하다.'라는 새로운 의미를 획득했으며, '간식으로'와 같은 필수 부사어를 요구한다.

③ ㉢ : 구성 요소의 의미를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획득했고 필수 부사어를 요구한다.

㉢의 '담쌓다'는 '담을 쌓다.'라는 구성 요소의 의미를 벗어나 '관계나 인연을 끊다.'라는 새로운 의미를 획득했으며, '야식과'와 같은 필수 부사어를 요구한다.

④ ㉣ : 구성 요소의 의미를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획득했고 필수 부사어를 요구한다.

㉣의 '녹슬지'는 '녹이 슬다.(쇠붙이가 산화하여 빛이 변하다.)'라는 의미에서 '오랫동안 쓰지 않고 버려두어 낡거나 무디어지다.'라는 새로운 의미를 획득했으며, '그녀는 노래 실력이 녹슬지 않았다.'가 성립하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필수 부사어를 요구하지 않는다.

⑤ ㉤ : 구성 요소의 의미를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획득했고 필수 부사어를 요구하지 않는다.

㉤의 '눈뜨게'는 '눈을 뜨다.(감았던 눈을 벌리다.)'라는 구성 요소의 의미를 벗어나 '잘 알지 못했던 이치나 원 리 따위를 깨달아 알게 되다.'라는 새로운 의미를 획득했으며, '최신 이론에'와 같은 필수 부사어를 요구한다.

